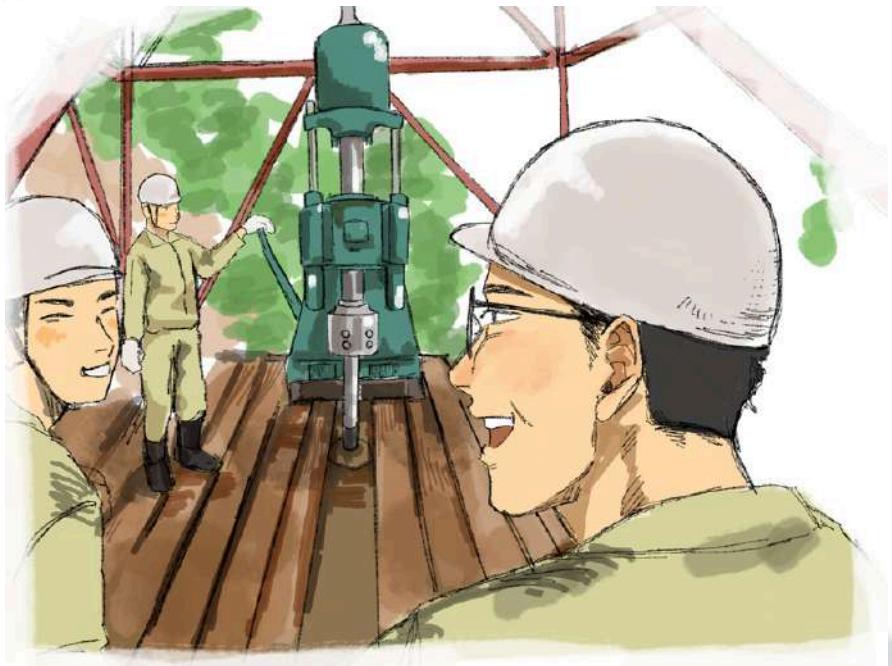


“기도록 솟아난 기적의 온천”



야마가 온천 바람의 고향 탄생 이야기



야마카초에

**‘야마카 온천 바람의 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山香町役場

企画課



本日の目標



그 무렵,
나는 야마카마치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야마카초는 쇼와 시대의 합병으로
여러 마을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진 곳이었고,
한때는 인구가 16,107명이나 되었지만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인구 10,000명을 유지하자고 힘을 모았죠.



마을을 더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1984년에 '코노산을
생각하는 모임' 코노산을 생각하는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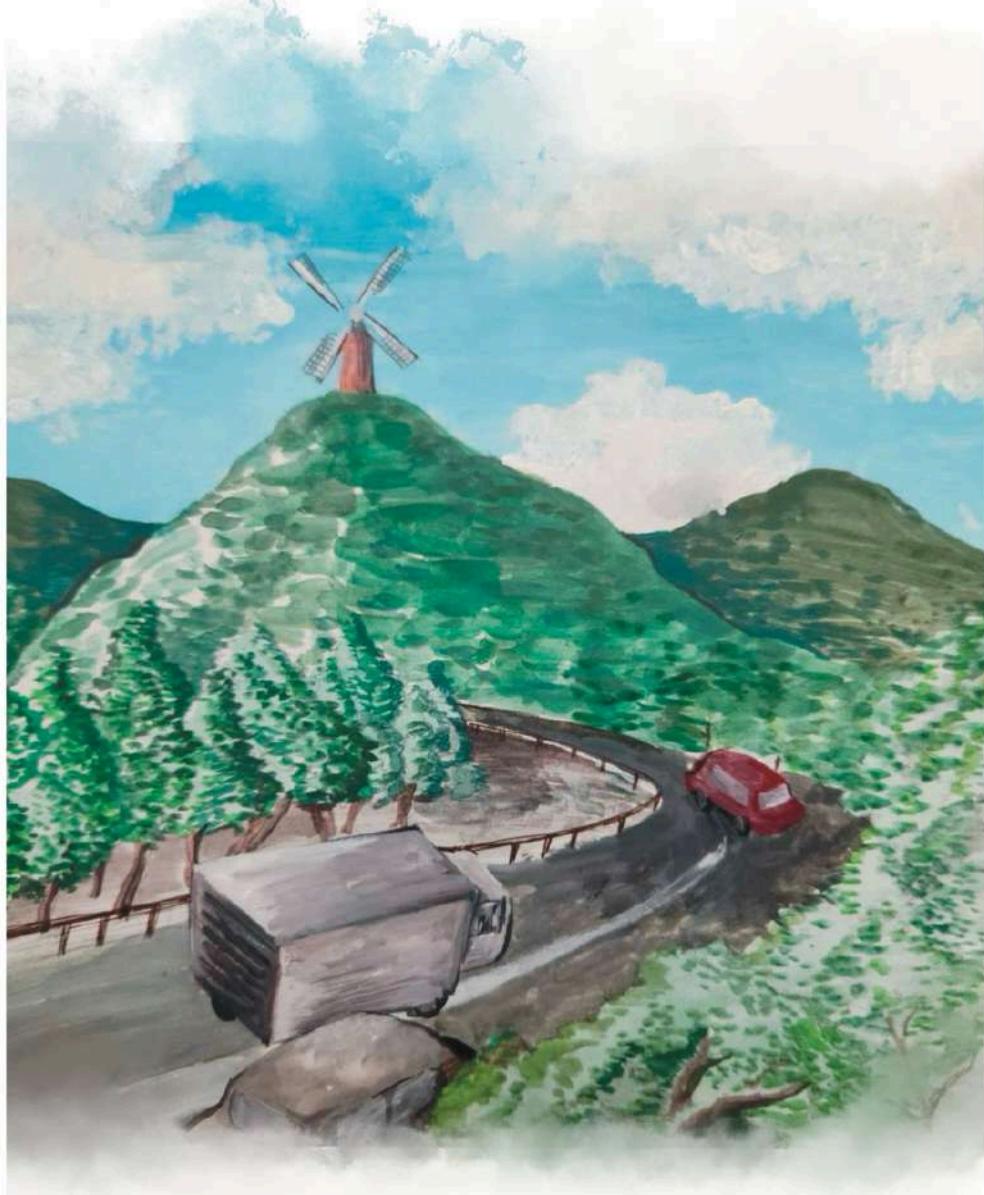


코노산에서는 함께 청소를 하고,
매년 벚꽃 축제를 열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무렵에는
마을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마을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1994년에는
오타로 이어지는 넓은 도로가 생겨서
마을 간의 연결이 더 좋아졌어요.
같은 해에는 코노산 주변을
더 발전시키자는 계획도 시작되었답니다.



지금 '바람의 고장'이 있는 장소에
온천과 숙박 시설을 짓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1998년에 '코노산 바람의 고장'을
세우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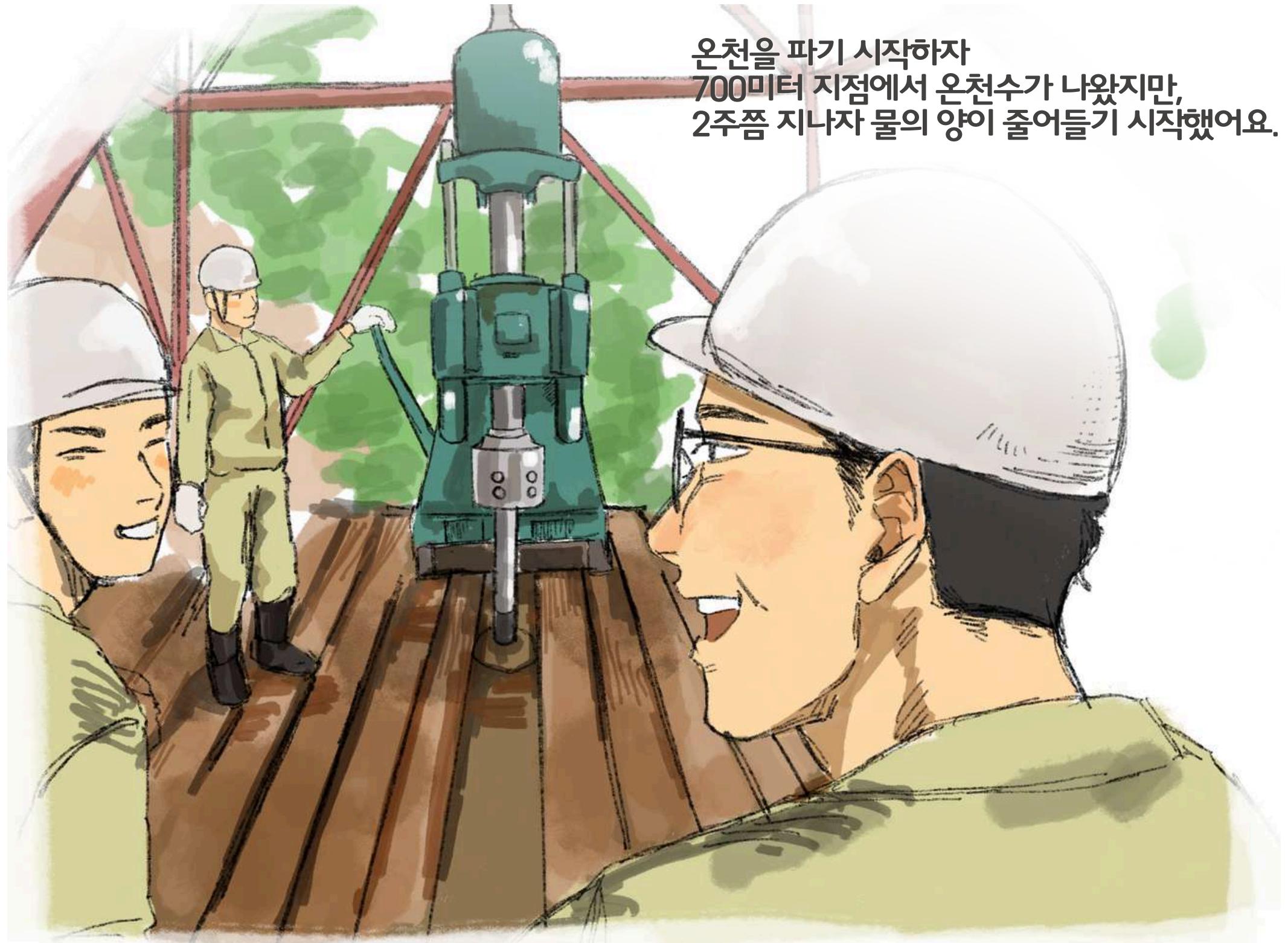
먼저 온천이 나올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세 군데에서 온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후 촌장이 바뀌면서
계획을 계속할지 고민도 있었지만,
저는 이 계획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온천을 파기 시작하자
700미터 지점에서 온천수가 나왔지만,
2주쯤 지나자 물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파보았고,
1,504미터 지점에서
드디어 원하던 온천이 솟아났어요!



그런 데 나와 준 온천수는 갈색이고 냄새가 심해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어떻게든 활용할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렇게 온천 시설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독일에서 기계를 들여오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자
저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고,
온천 시설이 완성될 때까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 시기에는, 온천이 잘 나오기를 바라며,
매일같이 근처의 ‘마타이 텐만샤
(학문과 지혜의 신을 모시는 신사)’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온천이
스스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천에는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농도는 오이타현에서 톱 레벨입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7일,
‘바람의 마을’이 드디어 문을 열었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야마카 온천 바람의 마을
‘지역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온천이 솟아나길’
바라는 기도를 담아 만들어진 정말로
‘기적의 온천’이에요.

우리 모두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잘 활용해요!





푸타

야마가 온천 활용 연구회
마스코트 캐릭터

